

설립 10주년 장애인 자활작업장 천주교 우산동 성당 '등대 공동체'

꿈을 만들어 가는 일터 장애인 '희망의 빛' 되다

"장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넉넉한 '꿈의 직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23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주택가에 위치한 장애인 자활작업장인 '천주교 우산동 성당 등대공동체'(이하 등대공동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노련한 손놀림에 에어컨 부속품 중 하나인 동파이프가 하나 둘씩 쌓여갔다.

신체·지적 장애인 1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직원이 적게는 4~5년, 많게는 10년째 이곳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직원들 모두 30만~80만원 조금 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직원의 딸을 위해 실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작업반장인 정석훈(49·신체장애 1급)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얻은 후 힘들게 보냈

었는데 일을 하고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활기차다"며 "대부분의 장애인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있어 기쁘고 적은 돈이지만 가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좋다"고 말했다.

등대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조경환(68·신체장애 3급)씨는 "내 나이면 일반인도 일할 데가 없는데 나는 아직도 일하고 있어 행복한 사람"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게 등대공동체에 일감도 많이 들어오고 직원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에어컨의 부속품을 만들다 보니 여름철보다 상대적으로 일감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작업량이 해가 다르게 줄고 있어 이들의 걱정도 늘고 있다.

장애인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일을 맡기는 업체가 없어 일감도 적는데다 400여 명에 이르던 후원회원들도 1~2년 전부터는 50여 명으로 줄어들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23일 오전 장애인들이 '천주교 우산동 성당 등대공동체' 작업장에서 에어컨 부속품인 동파이프를 만들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다. 등대공동체 장용희 이사장은 "설립(1998년) 당시 인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게 첫 출발이었다"며 "평동공단 등 일거리를 찾아 다니던 중 (주)명품회사와 인연이 닿아 일하게 된 게 지금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이사장은 "일반인이 만든 제품보다

더 정교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다'며 업체로부터 칭찬을 듣는 경우도 많았다"며 "등대공동체가 일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후원 문의 062-430-8294. 광주은행 146-107-441230 (예금주: 등대공동체)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칼럼



도암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가 어쨌든 현재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며 살아간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불교에서는 세가지 부류로 나눈다. 욕계, 색계, 무색계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은 욕망을 근본으로 하고, 욕망을 충족, 확대하려 하는 욕계다. 식욕·수면욕·성욕·재물욕·권력욕이 대표적이다. 자신의 의지욕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너지는 의지의 범주를 쉽게 넘어간다. 그 가운데 이기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 재물욕과 권력욕이다. 현대 용어로는 경제력과 정치력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쓸 수 있는 힘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욕망을 채우려 한다.

증지부 경전의 말씀이다. "여덟가지 힘이 있다. 어린이의 힘은 우는 것이요, 여인의 힘은 잔소리하고 종알거림이다. 강도의 힘은 싸움질이고, 왕의 힘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힘은 불평하는 것이요, 현자의 힘은 너그러운이다. 학자의 힘은 파고 따지는 것이요, 수행자의 힘은 인내이다." 욕망을 충족 확대 재생산하는 힘이라면 욕계의 굴레에 매여 있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

부처님은 불교도로서 잘사는 법을 말씀하셨다. 출가 수행자들은 수행과 전법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이미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법을 전하려 가자. 번뇌가 적은 이들이 우리의 법을 들으면 해탈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너희들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칭찬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누구라도 선행을 하면 선의 과보를, 악행을 하면 악의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 일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출가자로서 바른 행이라 말할 수 없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열반에 들기 전 신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희들이 일곱가지 법을 지키면 내 가르침은 나날이 번창하고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기쁨으로 서로 단합하여 서로 여기거나 거스르지 말라. 서로서로 깨우쳐주고 선업을 토론하라. 계율을 잘 지켜 보호하고 예절을 지켜라. 부모와 윗 사람을 받들어 공경하라. 친척들간에 화목하며 서로 받들고 순종하라. 나라 안에 있는 절과 탐을 수리하고 공양하라. 불법을 받들어 지니며 출가자를 가까이 공경하며 신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보호하라. 이러한 일곱가지를 받들어 실천하면 국토가 번창하고 사람들은 안락하라." 아함경의 말씀이다.

2552년 전에 부처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아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삼보가 온전히 남아 있게 되고, 이 세상에 건강한 이익을 줄 수 있다. (승려사 울림)

스님 65.4% "노후가 불안하다"

거처·생활비·질병 順 고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사

스님들의 65.4%가 노후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스님)가 23일 발표한 '승려노후복지 대책에 관한 인식 및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조계종 소속 전국 스님 560명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염려 정도를 묻자 133명(23.8%)이 '매우 염려한다', 233명(41.6%)이 '염려한다'고 답했다.

스님들은 노후 불안요소로 거처(25%), 생활비(23.2%), 질병치료(21.8%) 등을 꼽아 사실상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님들은 종단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노후대책으로 의료 및 생활수발자 지원(39.8%)을 꼽았다. 이어 거처문제(35.2%)와 수행비용(18.2%)의 해결을 들었다. 또 가장 선호하는 노후대책으로 국가보험(37.

7%), 사설 사암 운영(15.2%), 사유재산(12.3%)을 꼽았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국민 모두 가입하게 돼 있는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가 28.6%에 달해 종단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님들은 노후대책이 없어서 수행에 전념하기 어렵고(29.8%), 개인재산을 축적하게 되며(26.1%), 사설 사암이 증가(14.1%)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답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조계종 총무원에서 스님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9%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67.1%는 노후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노후생활시설로는 사찰 내 노스님 전용시설(50.7%), 소속 사찰(27%), 사설 사암(9.6%), 사찰 밖 노스님 전용시설(6.8%) 순으로 답했다.

스님들은 노후의 안정적인 수행생활을 위해 정기적인 급여, 지원금 등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데 절대다수인 94.1%가 동의했다. 이를 위해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스님이 90%였다. 연합뉴스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생활용품 바자

내달 6~9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정문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오는 10월6일~9일까지(오전10시~오후6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 정문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바자인 '펼쳐요! 직업재활, 열어요! 희망광주' 행사를 갖는다.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위해 직접 생산한 다양한 물품을 선보

이게 된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바자에서는 우리말로 만든 재과재봉, 허브차, 국산100%참기름, 천연 비누, 양초, 화장지, 압화(약세사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은 높은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들 물품이 제대로 판매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이번 바자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가을 山寺 순례 광주 원각사 내달 18~20일

"선선한 가을 바람 맞으면서, 유명 사찰 순례해요"

광주 원각사가 오는 10월18일~20일까지 설악산 일대의 사찰과 암자를 순례하는 '가을 성지 순례'를 떠난다. 설악산 백담사와 오세암, 봉정암 등을 도는 순례이다.

10월18일 오전 7시 원각사에서 출발하며,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2만원.

백담사는 신라 진덕여왕 1년(647년)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창건됐으며, 만해 스님이 기거하는 등 한국의 대표 사찰로 꼽힌다. 또 설악산에 있는 암자인 오세암은 다섯살 된 아이가 폭설 속에서 부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전설이 깃든 명소다. 문의 062-223-3168.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귀일원 창립 60주년 '사회복지의 꿈' 세미나

사회복지법인 귀일원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사회 복지 꿈(Dream of social welfare)'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귀일원은 26일 오후 1시 광주남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 광주대학교 이응교 교수, 김포한빛병원 서동우

원장, 엠마우스복지관 장비 관장, 광주지역정신보건사업지원 정광현 단장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복지운동에서 귀일원의 역할과 과제', '우리나라 정신보건 의 흐름 속에서 본 귀일원의 의의'를 주제로 사회복지 운동의 진단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귀일원은 지난 1949년 창설됐고, 지역 장애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

Advertisement for 'Member Recruitment' (회원 징발부동신의 따기 공고) for the 'Society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회). The ad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for name, address, phone number, and other details. The text at the bottom reads '광주지법법원 사회복지회 회원모집'.